

영광군-고등기술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업무 협약체결

그린수소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 협력

“탄소중립·수소경제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영광군은 지난해 12월29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고등기술연구원(원장 김진균) 및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와 영광군 그린수소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 전남테크노파크 외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전라남도·영광군이 지원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이하 '본 사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후속 그린수소 관련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등에 관해 세 기관이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제공, ▲그린수소 연계 사업 지속 발굴 및 국책사업 유치, ▲그린수소 관련 우량 기업 유치, ▲고등기술연구원 영광군 분원 설치,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으며,

세 기관은 공동 협력을 통해 영광군 그린수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약 대상인 고등기술연구원은 혁신기술과 실용적 가치로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대우그룹·아주대학교 등 산학연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자운영 민간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 연구 개발, 선진 기술 도입·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연구기관이다.

또 다른 협약 대상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을 비전으로 정부·전라남도·민간 등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며, 전남의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 성장 및 기술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은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에 고등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미래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 수소(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수전해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대용량 1MW급으로 장기 시험하여 국내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227억원(국비 153억 원, 지방비 60억 원, 민자 14억 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기반을 구축한다.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은 “에너지 산업의 중심도시인 영광군과 함께 그린수소 산업의 미래를 그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 대한민국 그린수소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원장은 “우리 기관은 무한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갖고 있는 영광군과 여러 사업을 잘 맞춰왔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계속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영광군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종만 군수는 “명품 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해 우리 군은 고등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와 같은 전문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 왼쪽부터 영광군청장 김진균,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고등기술연구원장 김진균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영광군 미래 에너지 전략산업의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며, 협약 이행으로 탄소중립·수소경제를 선도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음식문화개선·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1천만원 확보

함평군 보건소가 전남도 주관 '2022년 식품·공중위생관리 시·군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함평군은 “2022년 식품·공중위생관리 시·군 실적평가에서 '음식문화개선' 분야에서 우수상, '식품·공중위생관리' 분야에서 장려상을 각 수상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군은 '음식문화개선' 분야 우수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주민의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에 기여한 우수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

공중위생 분야 5개 부문 20개 지표, 음식문화개선 분야 8개 부문 21개 지표를 심사했다.

군은 올 한 해 식중독 예방관리,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안심식당 운영,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해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내년에도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위생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29일 음식테마거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업체의 음식문화개선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2023년 함평친지 한우·장어 전문식당 육성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먹거리전략팀 신설...무안 푸드플랜 본격 추진

올해는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와 다품목 생산에 집중

무안군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내 먹거리전략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먹거리전략팀은 무안형 먹거리계획(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기획 생산기반 조성, 먹거리지원 중간조직 육성,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로컬푸드 생산농가 교육·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2021년 지역단위 푸드플

랜 구축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안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하반기에 용역을 마무리 했다.

또한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로컬푸드 생산자조직 지원확대가 포함돼 로컬푸드 생산농가 교육, 선진지 견학, 소포장재 지원, 생산 기반시설 지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6억 3100만원을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활성화를 위해 투자할

예정이며, 올해는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무안형 푸드플랜의 핵심주체인 생산농가 의식 함양과 농가 조직화, 다품목 생산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중소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영암군은 지난해 12월28일 군청 남산실에서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를 위해 청년협의체와 청년대표로 구성된 위촉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및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를 통해 청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내년 '미래혁신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군정방향으로 ▲안정된 삶의 기반 조성 ▲청년자립 환경 구축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73억 규모의 10개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주요 청년정책으로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청년문화수당 지급, 청년기금 설치 등을 신규시책으로 내놓았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르신과 함께하고



2023년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 정기회의. 이날 회의는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를 위해 청년협의체와 청년대표로 구성된 위촉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및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를 통해 청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